

# 에른스트 블로흐의 낮꿈과 유토피아를 넘어: 베드로의 낮꿈과 하나님의 나라

유경동

## 목 차

### I. 서론

### II. 본론

- A. 프로이드의 밤꿈
- B. 에른스트 블로흐의 희망의 원리로서 낮꿈
- C. 희망의 원리로서 유토피아
- D. 미완성으로서의 유토피아와 기독교의 완전
- E. 베드로의 낮꿈
- F. 블로흐의 유토피아를 넘어 하나님의 나라로

### III. 결론




**유경동** 박사는 미국 에모리 대학(M.T.S.)에 이어 밴더빌트 대학에서 기독교윤리학으로 박사학위(Ph.D.)를 받았다. 현재 감리교신학대학교 기독교윤리학 교수이며 한국기독교윤리학회 회장이다.

## ■ 논문 초록 ■

종교적인 관점에서 꿈이 실제 계시와 믿음을 함유하는지, 아니면 꿈을 꾸는 행위와 종교적 행위의 관계에 어떤 요소들이 있는지 밝히려는 다양한 시도가 있었다. 기독교 세계관을 보면 구약과 신약에서는 꿈의 해석은 독특한 관점을 취한다. 그것은 꿈을 통한 하나님의 계시적 영역에 대한 강조이다. 즉 꿈을 통하여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에게 일어날 일과 하여야 할 일을 전하기도 한다. 꿈이 인간 정신의 자유로운 영역이며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라는 꿈의 내용은 개별적 존재의 개체성이 강조되는 면이 없지 않았다. 그러나 점차적으로 교권이 확립되며 아퀴나스와 스콜라철학의 성장, 성경에 대한 절대 믿음, 그리고 계몽주의 이후 인간 이성의 강조에 의하여 기독교 세계관에서 꿈의 문제는 점차적으로 주변화되어가고 있다고 본다.

필자는 이 글에서 꿈과 신앙의 관계에 대하여 윤리적인 행위와 책임의 문제에 대하여 연구하고자 한다. 이는 꿈이란 단지 욕망이나 무의식의 현재화에 그치는 것이 아니며, 그렇다고 다다르지 못하는 무의식 너머의 초월의 영역에 대한 신비를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고 본다. 꿈은 최소한 기독교적 관점에서 오히려 윤리적 현재화를 지향하는 무의식의 발로이며, 삶의 에너지를 확장하는 신앙의 발현으로 보는 것이다. 필자는 꿈에 대한 해석에서 프로이트와 대적점에 있었던 에른스트 블로흐(Ernst Bloch)의 '낮꿈' 이론을 중심으로 의식과 유토피아적 이상에 대한 그의 해석을 살펴보고, 사도행전 10장에 나타나는 베드로와 고넬료 가정의 구원사건에 등장하는 낮꿈의 해석을 통하여 블로흐의 꿈 해석을 넘어서는 신학적 의미를 살펴보고자 한다.

필자가 전개하고자 하는 논지는 크게 세 가지이다. 첫째, 에른스트 블로흐의 낮꿈의 해석을 프로이트와 비교하면서 그 핵심적인 관점을 살펴보고자 하겠다. 블로흐의 낮꿈과 프로이트의 밤꿈의 해석, 욕망의 발산과 유

토피아의 출현이라는 블로흐의 꿈 해석을 살펴보겠다. 둘째, 사도행전 10장의 베드로의 낮꿈과 연관한 종교적 이상의 의미와 윤리적 책임에 대한 문제를 살펴보면서, 한편 블로흐의 낮꿈에 대한 한계를 짚어보도록 하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종교적 꿈의 윤리적 함의에 대하여 몇 가지 관점을 제시하도록 하겠다. 

주제어

에른스트 블로흐, 낮꿈, 유토피아, 베드로의 꿈, 하나님의 나라

## I. 서론

꿈이나 꿈을 꾸는 행위는 고대부터 철학적 논의의 주제였다. 역사적으로 꿈에 대한 주제는 주로 인간의 무의식에 대한 회의주의의 맥락에서 이루어졌다. 아무리 의식적으로 노력한다고 할지라도 인간이 꿈을 꾸는 행위를 중지할 수 없기 때문에 꿈을 인간 이성의 영역 밖으로 보기도 하였다. 20세기 이후에는 꿈에 대한 철학적 관심은 점차 인간의 의식과 연관된 마음의 철학으로 바뀌었다. 꿈이 지속되는지, 단순히 각성되어 있던 순간에 삽입된 기억의 결과물인지, 꿈은 단순히 잠자는 동안 발생하는 환상이나 망상에 불과한 것인지, 아니면 상상력의 경험인지에 대한 논의가 있어왔다. 그러나 이 모든 사안에 대하여 합의는 없었더라도 프로이트(Sigmund Freud) 이후에는 꿈에 대한 해석은 인간의 무의식적 심리와 욕망의 관계로 보는 경향이 지배적이다. 한편 그의 제자 융(Carl Jung)은 꿈을 인간 무의식으로부터 분리된 현재의식으로 보기 때문에 기독교적 관점에서 그의 관점을 수용하는 입장을 취하는 경향도 있어왔다. 융의 꿈 해석은 인간 심연의 초월적 무의식을 신성의 영역으로 등치하여 인간 내면의 정신적 에너지와 집단 무의식을 통한 인격적 완성으로서 개체화를 강조하기 때문에 기독교적 영성신학의 관점에서 수용하는 입장을 보게 된다.

종교적인 관점에서 꿈이 실제 계시와 믿음을 함유하는지, 아니면 꿈을 꾸는 행위와 종교적 행위의 관계에 어떤 요소들이 있는지 밝히려는 다양한 시도가 있었다. 기독교 세계관을 보면 구약과 신약에서는 꿈의 해석은 독특한 관심을 취한다. 그것은 꿈을 통한 하나님의 계시적 영역에 대한 강조이다. 즉 꿈을 통하여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에게 일어날 일과 해야 할 일을 전하기도 한다. 꿈이 인간 정신의 자유로운 영역이며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라는 꿈의 내용은 개별적 존재의 개체성이 강조되는 면이 없지 않았다. 그러나 점차적으로 교권이 확립되며 아퀴나스와 스콜라철학의 성장, 성경

에 대한 절대 믿음, 그리고 계몽주의 이후 인간 이성의 강조에 의하여 기독교 세계관에서 꿈의 문제는 점차적으로 주변화되어가고 있다고 본다.

필자는 이 글에서 꿈과 신앙의 관계에 대하여 신학적 관점에서 윤리적인 행위와 책임의 문제에 대하여 연구하고자 한다. 이는 꿈이란 단지 욕망이나 무의식의 현재화에 그치는 것이 아니며, 그렇다고 다다르지 못하는 무의식 너머의 초월의 영역에 대한 신비를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고 본다. 꿈은 최소한 기독교적 관점에서 오히려 윤리적 현재화를 지향하는 무의식의 발로이며, 삶의 에너지를 확장하는 신앙의 발현으로 보는 것이다. 즉 꿈은 인간이 행동해야 할 윤리적 요소와 당위성을 내포하며 신앙과 연관된 하나님의 계시사건으로서 여전히 의미를 가진다고 본다. 필자가 주목하는 것은 꿈에 대한 해석에서 프로이트(Sigmund Freud)와 대척점에 있었던 에른스트 블로흐(Ernst Bloch)의 '낮꿈'이론을 중심으로 의식과 유토피아적 이상에 대한 그의 해석을 살펴보고, 사도행전 10장에 나타나는 베드로와 고넬료 가정의 구원사건에 등장하는 낮꿈의 해석을 통하여 꿈과 윤리의 맥락에서 해석하고자 한다.

필자가 전개하고자 하는 논지는 크게 세 가지이다. 첫째, 에른스트 블로흐의 낮꿈의 해석을 프로이트와 비교하면서 그 핵심적인 관점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블로흐의 낮꿈과 프로이트의 밤꿈의 해석, 욕망의 발산과 유토피아의 출현이라는 블로흐의 꿈 해석을 살펴보겠다. 둘째, 사도행전 10장의 베드로의 낮꿈과 연관한 종교적 이상의 의미와 윤리적 책임에 대한 문제를 '하나님의 나라'라는 범주화를 통하여 분석하여 보겠다. '의식과 무의식을 주관하는 하나님의 구원계획'과 성령의 명령에 대한 '윤리적 결단' 그리고 이를 통한 '하나님 나라의 실현'이라는 관점에서 베드로의 낮꿈을 살펴보면서, 한편 블로흐의 낮꿈에 대한 한계를 짚어보도록 하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종교적 꿈의 윤리적 함의에 대하여 몇 가지 관점을 제시하도록 하겠다.

## II. 본론

### A. 프로이트(Sigmund Freud)의 밤꿈

에른스트 블로흐의 낮꿈은 프로이트의 밤꿈과 다른 차원에서 해석된다. 먼저 프로이트의 꿈 이론에 대하여 핵심내용을 살펴보면, 그는 꿈을 각성 상태에서 억압된 기본적 욕망의 무의식적 표현으로 정의한다. 이러한 정의는 인간이 꿈을 꾸는 행위는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것이 아니라 불가피하게 꿈을 꾸게 된다는 기본적 관찰에서 나온다. 그에게 꿈이란 각성된 삶이나 경험되어진 현실로부터 완전히 단절된 것으로서 인간의 꿈 경험은 무의식적으로 삽입된 이질적인 것이다.<sup>1)</sup> 프로이트는 꿈은 현실과 구별된 환상적 경험을 제시하지만, 사실은 철저하게 개인의 실제 경험에 의존하고 있으며, 꿈에 나타난 어떤 행위나 상징은 인간의 보편적인 성적 욕구의 왜곡된 형태로 해석될 수 있다고 보았다.

프로이트의 꿈 이론은 일단 꿈을 인간의 무의식의 표현으로 이해한다. 특히 그는 기능적 측면에서 꿈은 특정한 사명을 수행한다고 가정한다. 그는 꿈이 인간에 의해 문화적으로 나타난 것은 아니며 인간의 과거로부터 보편적으로 경험해 온 정신적 활동으로 본다. 잠을 자는 동안 인간의 정신은 의식적으로는 외부 세계와 단절되지만, 본능적으로는 무의식적으로 외부세계를 인식하고 있다. 프로이트는 인간의 기본적 자아로서 이드(id)는 전적으로 인간의 무의식적 정신의 영역으로서, 통제할 수 없지만 조직적으로 이를 억누를 수 있다고 본다. 프로이트식으로 보면, 꿈은 이렇게 억압되어 있는 무의식적 자아의 출현으로 설명될 수 있다.

꿈의 일차적 기능은 심리적 차원에서 소망 실현(wish fulfillment)에 있

1) Sigmund Freud, *The Interpretation of Dreams*, trans. by James Strachey (New York: Basic Books, 2010), 43-44.

다. 낮 동안 인간은 자신이 실현할 수 없는 많은 욕망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욕망들은 이드(id)에 의해 끊임없이 나타난다. 욕망이 때로는 인간의 행동을 이끌어 내는 충동을 일으키기도 하지만, 인간은 사회적으로 어떠한 반사회적 행위에 대해서는 통제해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조직적으로 이를 억압한다. 따라서 이렇게 억압된 이드의 소망이 꿈을 통해 실현됨으로써 또는 실현되었다고 믿게 함으로써, 실현 불가능한 반사회적 욕망들이 더 이상 낮에 발현되지 않게 된다고 프로이드는 보았다.<sup>2)</sup>

꿈은 지시적(indicative) 내용과 명령적(imperative) 내용에 의존한다. 마음의 지시적 상태란 나의 재현적 체계(representational systems)가 세상을 어떤 특정한 방식으로 보여주는 상태를 말한다. 예를 들어 믿음이 지시적 내용을 포함하는데, 내가 정확하게 비가 오고 있다고 인식하고 그렇게 믿으면 나는 지시적인 재현적 정신 상태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반면에 마음의 명령적 상태란 세상이 어떠한 해야 한다는 즉 현재 상태와 다른 어떤 상태를 바라는 욕망으로 표현된다. 이렇게 본다면 꿈이란 욕망을 억제하기 위하여 명령적 상태의 표현을 지시적 표현으로 바꾸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는 꿈에서 무언가를 보고 그것이 마치 우리 앞에 있는 것처럼 믿는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원하고 우리가 욕망하는 바이며 우리가 그것을 가진다고 믿는 순간, 그 욕망은 완전히 정복되고 의식이 깨어 있는 상태에서는 더 이상 그러한 욕망을 추구하려고 노력하지 않게 되는 것이다.<sup>3)</sup>

지금까지 살펴본 프로이드의 꿈에 대한 해석과는 달리 블로흐는 꿈을 인간의 의식이 꿈이라는 무의식적 표현과 연관된다고 보았다. 프로이드가 주로 과거의 억압된 성적 욕망의 경험이 밤꿈을 통해 재현되고 실현됨으로써 그 욕망을 성취하고 만족시킴으로써 욕망이 단절된다고 보는 반면, 블로흐는 꿈이란 현실에서 자신에게 없는 것을 인식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

2) 위의 책, 234.

3) Ben Springett, "Philosophy of Dreaming," Internet Encyclopedia of Philosophy, URL=<http://www.iep.utm.edu/dreaming/>

한 유토피아적 이상을 표현하는 '낮꿈'과 같은 것이라고 본다. 블로흐는 프로이드의 꿈이론이 프로이드도 주장한 바 거품처럼 덧없는 것도, 그렇다고 예언적인 신탁도 아닌 그 사이라고 보면서 “환각으로 화한 갈망의 성취이자 아울러 어떤 무의식적 바람에 대한 가상적 실현이 바로 꿈의 기능”이라는 프로이드의 기본적인 입장에는 동의하고 있다.<sup>4)</sup> 블로흐는 프로이드의 꿈이론이 과거지향적이며 완료와 단절을 전제하고 그리고 자신의 이론은 미래지향적이며 지속적인 경향성을 가진다고 주장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로이드의 꿈이론은 블로흐의 미래지향적 요소를 결여하고 있기 때문에 낮꿈을 통한 그의 해석은 희망의 원리로서 유토피아적 요소를 내포하고 있다. 다음에서 그 원리들을 살펴보자.

#### B. 에른스트 블로흐(Ernst Bloch)의 희망의 원리로서 낮꿈

에른스트 블로흐(Ernst Bloch)는 희망과 자유를 성취하려는 인간의 욕망이 인간의 일상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에 대하여 관심을 가졌다. 블로흐는 희망과 유토피아를 단순히 낙관적인 입장에서 접근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인간의 희망이 단지 부정을 부정하려고 하거나 또는 부정으로부터 나아가려는 소망의 위험성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블로흐는 프로이드가 억압된 과거에 대한 트라우마와 같은 악몽에 심하게 집착했다고 보았다. 프로이드에게 있어서 모든 꿈, 특히 낮꿈의 환상 같은 것들은 인간 개인의 성적 욕망을 억압함으로써 성적인 의미를 함유한 소원을 담은 꿈이 무의식적으로 드러나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에 블로흐는 실제로 인간을 움직이게 하는 것은 더 나은 더 밝은 세상에 대한 몽상들이라고 주장한다. 그렇기 때문에 블로흐는 ‘희망의 원리’(The Principle of Hope)를 통하여 꿈과 동화, 스포츠와 음악, 사랑과 같은 방식을 통해 인간은 자신의 소망을 표현하며, 때로는 그것이 아직은 이루어질 수 없는 희망을 표현하고 함의하고 있지만

4) Ernst Bloch, 박철호 역, 『희망의 원리』 1권 (서울: 열린책들, 2004), 160.



미래로 향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블로흐가 제시하는 이 세계에 대한 ‘희망의 원리’는 ‘만약 그렇게 된다면’이라는 가정과 함께 작동한다. 특히 희망의 원리로서 존재는 잠재력으로서 발전하는 총체성의 일부이며, 과연 그 잠재성이 실현될 수 있는지의 여부는 불투명하다. 왜냐하면 존재는 세계물질로서 생성과정에 있으며 물질의 조건에 의지하기 때문이다. 이 유물론적 생성의 과정은 도덕적 유토피아적인 측면에서 정치적 형이상학을 전제하기 때문에 미래의 희망은 아직 알려지지 않은 전체성이자 최고의 선이 된다. 따라서 미래에 대한 희망의 가정이 곧 바라는 미래가 실현된다고 믿는 식으로 가정이 그대로 실제로 치환된다면, 그것은 더 이상 유토피아가 아니며, 단지 몽상에 불과하게 된다.<sup>5)</sup>

에른스트 블로흐가 주장하는 그의 ‘희망 철학’에서 인간은 ‘아직-아닌-존재’(the Not Yet)이며, 그 출발은 굶주림과 어두움과 같은 인간 실존의 갈망과 연관이 된다. 갈망은 마치 인간의 내부에서 끊임없이 충동하는 것으로 스스로 자족할 줄 모르는 돌출되지 못한 그 무엇이다. 그것은 마치 인간이 자신의 몸속에서 맥박 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의식하지 못하고 그리고 어떻게 혈액이 온몸을 흐르고 심장이 뛰는지 모르는 채 살아가는 것과 같이, 인간 존재의 의식은 이와 같이 서로 뒤엉킨 것과 같이 되어 있다고 블로흐는 보았다.<sup>6)</sup> 블로흐는 인간의 갈망과 상상이 인간의 내부에서 작동하지만, 직접적으로 어떤 행위를 이끌고 또한 이를 완수하지는 못한다. 왜냐하면 이러한 갈망이 실제적으로 실현되기에는 많은 변수가 있기 때문이다. 다만 갈망 즉 굶주림과 어두움과 같은 요소들은 블로흐에게 인간을 존재케 하는 충동이나 생명력과 같은 것이다.

그는 인간 존재의 내적 갈등인 굶주림이 개인의 심리적 개념인 리비도

5) Ernst Bloch, *The Utopian Function of Art and Literature: Selected Essays*, trans. by Jack Zipes and Frank Mecklenburg (Cambridge, MA: The MIT Press, 1989), 3.

6) Ernst Bloch, 『희망의 원리』 2권, 593.

(libido)에 맞닿아 있다면, 어두움은 사회경제적 차원에서 해석되어야 하는 유토피아적 희망 곧 낮꿈과 연관된다고 보았다.<sup>7)</sup> 프로이드의 꿈이 낮 동안에 억압된 무의식이 자율적으로 발현되고 가상적으로 꿈속에서 실현되는 것이라면, 블로흐의 낮꿈은 의식 내부에 아직 스스로 성숙되지 않은 것, 실현되지 않은 것에 대한, 즉 의식적으로는 약화되어 있지만 확고한 잠재성으로 남아 있는 어두움을 의미한다. 그러나 실현되지 않은 잠재성으로 남아 있는 어두움의 의미한다. 그러나 실현되지 않은 잠재성은 유토피아의 이상과 연결이 되어 하나의 사회문화적 보편성을 담지한 이상향이 되고 인간성의 실현을 위한 프로젝트가 되는 것이다.

블로흐에게 어두움이라는 낮꿈의 요소는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그 정체를 개방성의 밝은 곳에서 드러내는 배경이 되며 낮꿈의 개체들은 어둠에서 뛰쳐나와 유토피아로 향하게 된다. 이는 미성숙에서 성숙으로 향하는 개체의 잠재성이 유토피아의 전선으로 뛰어드는 과정을 설명한다.<sup>8)</sup> 이와 같이 낮꿈은 지속적인 경향성 또는 지속적 잠재성으로서의 의미를 가지며, 단순히 억압된 굶주림을 무의식적으로 실현하는 것과는 구분된다. 프로이드의 밤꿈이 억압된 욕망과 그러한 욕망의 억압을 포함하는 과거의 기억을 꿈의 형태로 표현하고 실현함으로써 리비도의 왜곡된 상에 만족하며 과거 지향적이고 그리고 한 번 꿈을 통해 실현되면 그러한 억압된 욕망이 사라지는 반면, 블로흐의 낮꿈은 현존하는 모습을 통해 미래의 희망을 예측하거나 상상한다. 그리고 이렇게 상상된 꿈의 내용은 구체적인 사회경제적인 배경에 근거하여 그 토대를 바꾸는 열망으로 바뀔으로써 유토피아는 지속성을 가지는 것이다.<sup>9)</sup>

7) 위의 책, 번역자의 각주 539 참고.

8) 위의 책, 597.

9) “가장 강렬한 지금의 삶은 아직 본연의 자신으로 변모하지 않았으며, 아직 자신을 보여주지도 개방시키지도 않았다. 그렇기에 그것은 현존하는 모습, 존재의 현상을 전혀 드러내지 않고 있다. ‘실존하는 지금’은 모든 것을 충동하고 이로써 모든 것을 약동하게 하며, 무엇과도 비교될 수 없을 정도로 체험되지 않은 무엇이다. 그것은 세상 속에서 끊임없이 활동하고 있으며 자신을 거의 실현시키지 않은 채 다른 것들을 실현시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낮꿈의 내용은 무엇인가? 인간은 밤꿈을 통해서가 아니라 낮꿈을 통해 미래를 현실화하며, 역으로 미래의 모습이 낮꿈을 통해 예견화된다. 프로이드는 환상이 낮꿈과 연관이 된다고 보았는데 그것은 “탐욕적인, 동경하는, 그리고 에로틱한 일반사람들의 갈망이 만족된 형태로 표상된 것”이라고 보았다.<sup>10)</sup> 그러나 블로흐는 낮꿈은 밤꿈의 전 단계가 아님을 강조한다. 낮꿈은 프로이드가 생각한대로 밤에 꾸는 꿈의 예행연습이 아니며 밤꿈 또한 낮에 존재하였던 충동적 활동의 잔영이 아니다.

블로흐는 첫째, 낮꿈의 특성을 ‘자유로운 운행’ 즉 인간의 의지에 의하여 스스로 꿈의 내용을 설정하는 영역이 확보되는 것이라고 보았다. 깨어있는 꿈의 욕구는 간헐적이지 않으려 하기 때문에 “깨어있는 꿈속의 공간은 순수하게 꿈꾸는 자가 스스로 설정한 상상에 의해서 배치될 뿐이다.”<sup>11)</sup>

둘째, 자아는 낮꿈에서 밤꿈과는 달리 약화되어 있지 않으며 몽상 속에 빠져 들어가지 않고 오히려 열망과 함께 인간의 갈망을 상승시킨다.<sup>12)</sup> 낮꿈에서 자아는 의식된 의지를 가지고 성숙된 자기 자신을 직면하며 성숙된 영혼의 움직임에 따라 꿈속에서 일치된 자아의 경험을 하게 된다.<sup>13)</sup> “낮꿈 속의 자아는 의식을 떨쳐 버리지 않으며... 자아의 검열은 사라져버린다.... 까닭은 무엇보다도 낮꿈 속의 자아를 감동시키고 강화시키며 그리고 최소한 정당화시키려는 갈망의 상상에 기인하다.”<sup>14)</sup>

셋째, 낮꿈은 ‘세상의 개혁’과 연관이 된다. 밤꿈은 사적으로 자신의 것만 소유하고 있지만, 낮꿈을 꾸는 자는 열광하는 자아의 주위에 대한 관심

는 무엇으로 규정될 수 있다. 순간의 어둠은 이렇듯 스스로 활동한다.” Ernst Bloch, 『희망의 원리』 1권, 161, 2권, 605.

10) 위의 책, 176.

11) 위의 책, 179.

12) 위의 책, 178-80.

13) 위의 책, 183.

14) 위의 책, 184.

을 가지고, 공동적으로 무엇인가 향상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다. 낮꿈은 외부로 향하며 공개적인 특징을 가지고 무엇인가를 전달하려는 갈망과 연관이 된다.<sup>15)</sup> 낮꿈은 “고난과 각박한 삶 그리고 거칠고도 평범한 삶을 보내면서 무언가를 계획하거나 형상화시킨다. 그렇게 함으로써 인간은 의식의 창문을 활짝 열어젖히며 찬란하게 빛을 발하고 있는 먼 곳으로 시각을 향하게 된다.”고 블로흐는 묘사한다.<sup>16)</sup>

넷째, 낮꿈은 “끝으로 향하는 운행”으로서 개방성을 지향하며 정신적 차원에서 욕망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급진적 최후 즉 갈망을 성취하는 목적을 향하여 나아간다.<sup>17)</sup> 이렇게 최후를 향하여 나아가는 낮꿈의 본질적 요소에는 “가능한 현실에 대한 진지한, 예측된 상”을 가지고 앞으로 도래할 형상을 미리 보게 되는 것이다.<sup>18)</sup> 낮꿈에서 갈망은 실현되기 위하여 도래할 내용을 형상으로 투영하며 자신을 세계 안에서 확장하고 실현하기 위하여 목표를 가지게 된다.<sup>19)</sup> 그리고 이제 그 목표가 유토피아가 되는 것이다. 이 내용을 다음 장에서 살펴보자.

### C. 희망의 원리로서 유토피아

앞에서 살펴본바 블로흐의 낮꿈은 유토피아를 지향하며 이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희망의 잠재적 표현이다. 그는 특히 현대 기술과학의 발전으로 인해 유토피아를 단지 정신적 산물로 폄하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 물론 기술의 완전은 인간이 꿈꿔 온 유토피아를 위한 물질적 기초를 세워줄 수 있지만, 그러한 유토피아 즉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미래에 대한 개념이나 사고를 현재의 관점에서 확정지어서는 안 된다고 보고 있다. 블로흐에

15) 위의 책, 190.

16) 위의 책, 191.

17) 위의 책, 195.

18) 위의 책, 197-202.

19) 위의 책, 202-203.

게 있어서 유토피아에 대한 인간의 희망 또는 꿈의 실현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고 쉽게 상상하거나 가정할 수도 없다. 그렇다고 하여 유토피아에 대한 소망이 단순히 전혀 실현불가능한 망상으로 치부해서도 안 된다. 그는 유토피아 개념 자체가 고정된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발전가능하고 변화 가능한 미래적 또는 종말론적 개념이라고 본다.

블로흐에 따르면 인간에게 미래의 유토피아란 공간으로 멀리 떨어진 것이 아니라 아직 해결되지 않은 '지금' 즉 어두움을 포함하고 있는 정신적 공간이다. '지금'은 '아직 폐쇄되지 않은 미래'로서 어두움과 연결되어 있지만 새로운 세계를 위하여 돌진하는 것이다. 과거는 인간에게 이미 지난 시간이며 그리고 객관화 시킬 수 있을 것 같지만, 실상은 미래와 연결된 시간의 의식 속에서 파악된다.<sup>20)</sup>

결국 유토피아는 하나의 닫힌 과거나 완전으로 규정될 수 없으며, 현재의 주체의 상태와 상황에 따라 다른 모습으로 실현되는 열린 결말이라고 할 수 있다. 그 유토피아의 완전한 실현이 파괴된 존재론으로 귀착하는 반면, 열린 유토피아는 현재 있는 것을 획득함과 동시에 현재 없는 것을 추구함으로써 새로운 유토피아적 단계, 즉 정태적 단계를 넘어 아직 '없는 것'에 이르게 된다.<sup>21)</sup>

결국 인간의 낮꿈에 표현되는 다양한 유토피아적 속성은 그것이 기존의 사회적 인식과 전통에 의해 심하게 단순화된다 하더라도 그 자체의 타당성을 잃지 않을 것이라는 점에서, 단순히 수동적인 작용이 아니라 그 자체로 능동적인 행동의 요인으로 작용될 수 있다. 따라서 유토피아를 함의한 낮꿈은 더 나은 삶을 꿈꾸는 희망이라는 점에서 사회적 유토피아를 지향한다. 그렇기 때문에 그 유토피아의 내용은 항상 사회적 상황과 함께 변화될 수 있다. 그러나 그 내용이 변화했다고 해서 유토피아 자체의 의미가 퇴색되는 것은 아니다. 낮꿈은 그것을 꾸는 주체의 갈망을 심리적으로 표

20) Ernst Bloch, 『희망의 원리』 2권, 614.

21) 위의 책, 641.

현하는데, 이때 개인의 꿈이 사회적 유토피아의 모든 내용을 고려하여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블로흐는 다만 낮꿈에는 모든 인류의 긍정적인 특질을 넘어서 인간에게 보편적인 갈망을 내포하고 있다고 본다.<sup>22)</sup>

낮꿈과 희망은 인간의 자연적 본성 즉 인간을 사회문화적 배경에 자연화하고 그 자연을 인간화함으로써 잠재성을 현실과 연결한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갈망, 의지, 계획, 예측된 상, 상징적 의향, 하나의 의미를 지닌 암호 등은 과정 속에서 스스로의 공간을 차지하며 과정 속에서 잠재적인 천국을 형성”한다고 기대할 수 있다.<sup>23)</sup> 이와 같이 유토피아는 언제나 인간의 주체적 의지 속에 또는 사회적 변화의 목표에 지속적으로 남아 있게 된다. 물론 특정한 객관적 목표로서의 유토피아가 아니라 현실에서 인식되는 어둠의 본질을 넘어서는 목표로서의 열린 이상향으로서 유토피아를 의미한다.

필자는 이와 같은 블로흐의 낮꿈에 희망의 원리가 내포되어있지만 이제 살펴볼 기독교의 원리와는 차이가 있다고 본다. 그 내용을 다음 장에서 살펴보자.

#### D. 미완성으로서의 유토피아와 기독교의 완전

블로흐에게 인간은 구체적으로 자신의 유토피아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아직-아닌-존재’(the Not Yet)이기 때문에 ‘아직은 이루어지지 않은 존재의 존재론’(Ontology of Not-Yet Being)을 그는 전개한다.<sup>24)</sup> 블로흐의 철학은 희

22) Ernst Bloch, *The Utopian Function of Art and Literature: Selected Essays*, trans. by Jack Zipes and Frank Mecklenburg (Cambridge, MA: The MIT Press, 1989.), 5.

23) Ernst Bloch, 『희망의 원리』 2권, 627.

24) 사이티아 다스(Saitya Brata Das)는 하버마스의 분류를 인용하여 그를 셸링과 맑스 주의자(Schellingian Marxist)로 명명한다. 셸링(F. W. J. von Schelling)은 피히테(J. G. Fichte)와 헤겔(G. W. F. Hegel)과 더불어 18세기 후반, 19세기 초 독일 이상주의를 대표하는 철학자로 그의 핵심적 철학 사상은 주체성을 제한하는 조직적 형이상학

망의 원리로서 종말론을 헤겔적 관점의 역사인식이 결합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물리적 실재와 인간의 상호작용 사이의 관계 내에서 꿈을 통한 표현과 그 안에 숨겨진 희망의 내용들이 함께 성장한다고 보는 것이다. 이러한 성장과 숨김의 과정에서 인간의 꿈은 항상 잠재적 희망으로 충만하면서도, 그러한 희망이 성취되기 위한 물질적 조건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실현되지 못한 그러나 기대하는 종말론적인 지평에 있는 것이다.<sup>25)</sup>

블로흐는 기독교적 이상에는 유토피아적 요소가 담겨져 있다고 보고 있다. 그는 기독교의 정신은 권력의 욕망을 억누르고 저항적인 인간정신을 혁명적으로 완수하는 데에 있다고 보았다. 비록 사회적 유토피아는 아니지만 성서는 사회에 대한 변혁의 꿈을 내재하고 있다고 전제하였다.<sup>26)</sup> 그러나 지배체제는 종교와 야합하여 권력을 정당화하고, 기독교 또한 체제유지를 위하여 종교적 이상을 정치적 이데올로기로 변질시킬 수 있다고 그는 비판한다. 그는 마르크스주의자이면서도 역설적으로 희망이 있는 곳에 종교가 있다고 피력하면서 성서에 담긴 혁명과 저항의 인간적 움직임이 희망이라고 보고 있다. 그는 성서에 나타나는 이야기는 가난한 이들이 중심이

---

에 있다. 헤겔이 합리적 철학을 통해 특정한 시간에 대한 공식적인 철학을 펼친데 반해, 셸링은 특정한 시간에 대한 공식적인 합리적 철학을 제시하는 것은 아직 때 이른 것(untimely)으로 지적한다. 이와 동시에 셸링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유토피아에 대한 잠재적 동인이 현재의 인간의 주체적 사고에 존재하고 있으며, 이러한 유토피아적 희망은 그 물질적 조건이 갖춰지면 실현될 수 있다는 종말론적 사고로 나아가고 본다. 이를 바탕으로 셸링은 자연철학을 넘어서는 초월 철학을 제시하는 동시에, 역사에 대한 긍정적 철학을 제안한다. 블로흐는 이러한 셸링의 철학적 유산을 이어 받았다고 할 수 있다. Sautya Brata Das, “Fredrich Wilhelm Joseph von Schelling,” Internet Encyclopedia of Philosophy, URL=<http://www.iep.utm.edu/schellin/>

25) Peter Thompson, “The Frankfurt School, part. 6: Ernst Bloch and the Principle of Hope” the Guardian, Philosophy: How to Believe, April 29th, 2013, URL=<http://www.theguardian.com/commentisfree/belief/2013/apr/29/frankfurt-school-ernst-bloch-principle-of-hope>

26) Ernst Bloch, 『희망의 원리』 2권, 1019.

며 해방과 변혁을 위한 열망이 담겨져 있다고 보고 있다.<sup>27)</sup>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혁명적이어서 억압된 인간의 해방에 대한 메시지이지만, 기독교의 보수화로 말미암아 그 본질이 거세되었다고 블로흐는 보고 있다. 예수의 말씀은 이 세상 속 한 가운데에서 ‘지금’ 이루어져야 하는 종말론적 선포였음에도 불구하고 역사적 기독교는 이를 교묘하게 비켜나갔다고 그는 비판하고 있다.<sup>28)</sup>

특히 역사 속에서 보수화된 기독교는 이 세상에서 지금 고통 받는 문제들을 외면하고 저 세상에서의 지복이 답이라고 바꾸었다고 블로흐는 비판한다. 이런 면에서 블로흐는 마르크스주의자들이 꿈꾸었던 사회주의 혁명이나 성서가 담지하고 있는 해방의 내용은 큰 거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고 보고 있다. 오히려 기독교와 해방과 마르크스의 혁명은 함께 공조되어야 할 이상이라고 그는 본다.<sup>29)</sup> 마르크스의 목표가 역사의 폭압을 제거한다는 관점에서 구원이 되지만, 블로흐가 아쉬워하는 것은 그 종착점을 역사의 끝에 둔다는 점이었다. 그러나 기독교에서 달콤한 거짓을 물리치고 지금 현재의 해방을 증시한 예수의 하나님 나라가 그 목표가 되는 경우, 상당한 자유를 이 땅에서 실현할 수 있다고 블로흐는 희망한다.<sup>30)</sup>

결국 마르크스주의의 혁명이나 기독교의 십자가를 통한 구원의 여정은 이 땅의 소외된 자들에게 희망을 선포하고 또 다른 미래를 향하여 나아가는 정신적 에너지를 제공한다. 이를 위한 미래의 실험과 세계의 실험에서 농민전쟁의 전사 플로리안 가이어의 장검에 새겨진 “십자가가 없으면 승리의 화환도 없다.”는 구절처럼 그 목표는 분명하다고 블로흐는 강조한다.<sup>31)</sup>

위와 같은 기독교에 대한 관점에 대한 블로흐의 입장에도 불구하고 그의 잠재성으로서의 유토피아 개념은 기독교의 역사 개념과는 차이가 있다.

27) Ernst Bloch, 『저항과 반역의 기독교』, 64.

28) 위의 책, 105.

29) 위의 책, 509.

30) 위의 책, 452-53.

31) 위의 책, 509-510.



왜냐하면 기독교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안에서 실현된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지향하지만 블로흐의 유토피아는 미래에 대한 궁극적 확신으로서 역사는 철학의 창조적이며 자유로운 결과의 유산이며 미완성으로 남기 때문이다. 블로흐에게 또한 과거란 잠재적 희망을 실현하는 데 가능성이 있지만 자아가 나아가는 데 방해가 된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는 부정적으로 비쳐지지 않으며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통합되기 때문에 블로흐의 시간개념과 다르다.

블로흐는 존재론적인 측면에서 기독교의 완전개념을 비판한다. 그는 인류가 얼마나 자신이 꿈꾸는 유토피아를 실현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그는 희망의 측면에서 기독교의 완전개념과 다르다고 보았다. 블로흐는 기독교의 인간관은 신의 존재론적 관점과 연관되어 불완전한 피조물보다도 완전한 피조물을 지향하여 온 점에 대하여 비판한다. 그는 ‘가능한 완전’에 대한 기독교적 희망은 고정되거나 현실적인 어떤 실체로 표현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 블로흐는 희망은 확신이 아니며 만약 희망이 중지된다면, 그것은 더 이상 희망이 아니기 때문에 기독교적 완전 개념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보고 있다.<sup>32)</sup>

필자는 블로흐의 희망의 원리의 한계를 짚어보았으며 이제 성경에 나타나는 베드로의 낮꿈의 내용을 통하여 꿈을 통하여 현실화되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다. 베드로의 낮꿈에 나타나는 내용은 프로이트의 밤꿈과 블로흐의 낮꿈을 넘어서는 윤리의 현재화와 행위적 요소가 담겨져 있으며 하나님의 나라와 연관된 공동체적 개념이 형성되어 있다. 그 내용을 살펴보자.

32) Ernst Bloch, *The Utopian Function of Art and Literature: Selected Essays*, trans. by Jack Zipes and Frank Mecklenburg (Cambridge, MA: The MIT Press, 1989), 16-17.

## E. 베드로의 낮꿈

필자는 앞에서 블로흐의 낮꿈을 통하여 희망의 원리와 유토피아적 요소들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블로흐에 따르면 인간의 낮꿈은 깨어있는 꿈으로서 이는 무언가 성취되지 않은 채 남아있지만, 그것이 단순히 허구의 이야기로 차단되는 것이 아니라 다가올 미래와 연관된다. 블로흐는 “예측된 상이 주관적으로 내면에서 번성하는 대신에, 대상에 의해서 충분히 자극받게 되면 그것은 사실의 진행 자체로 화한다.”고 지적한다.<sup>33)</sup> 낮꿈과 희망의 원리를 연결하여 낮꿈은 현실에서 인식된 ‘없음’에 대한 상징적 형체로서 그 자체로는 이루어지지 않은 채 끝이 나지만, 그러한 미완결은 궁극적으로 이 꿈이 실현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으로 지속될 수 있다.

물론 여기서 희망은 예측된 미래이지만, 그 자체로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블로흐는 인간의 철학적 지성은 이러한 희망의 실현 가능성을 극대화시키는 작용이라고 강조하며 철학은 희망에 대한 유물론 해답이며 전체성에 대한 열망이라고 강조한다. 즉 전체성은 아직 미완성의 과정 속에서 미래를 향하고 있지만, 그것은 공상이나 망상이 아니라 현실에 기초한 희망 위에서 실현가능한 잠재성을 이끄는 것이다.<sup>34)</sup>

그렇다면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베드로의 ‘낮꿈’은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 베드로의 낮꿈은 블로흐의 희망의 원리로 다 설명할 수 있는지, 아니면 블로흐의 희망의 원리가 파악하지 못하는 독특한 요소들이 있는지 살펴보는 것은 매우 의미가 있다고 본다. 왜냐하면 블로흐의 기독교 비판을 넘어서는 원리들을 통하여 기독교적 세계관을 재조명할 수 있기 때문이다.

베드로를 통한 고넬료의 구원사건은 환상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전하여짐으로써 이루어진다. 고넬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소개되

33) Ernst Bloch, 『희망의 원리』 2권, 667-68.

34) 위의 책, 689-90.

고 있으며(눅 7:2-10; 마 27:54), 이방인으로서 유대교로 개종하거나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으로서 경건하고 구제에 힘쓰는 사람으로 소개되고 있다(행 10:4).

고넬료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은 “네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네가 지금 사람들을 읍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행 10:4-5)의 말씀을 통하여 구원의 계획이 확증된다. 그리고 구약의 요나가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기 위하여 배를 탔던 읍바에 있는 베드로를 통하여 고넬료와 온 집안의 사람들이 구원받게 되는 자세한 계획이 미리 알려지게 되었다고 나중에 또 고백된다(행 11:13-14). 그리고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도착하였을 때 고넬료는 복음을 듣기 위하여 가족들을 모아놓고 기다리고 있었다(행 10:24).

고넬료도 환상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계획을 알게 되었지만(행 10:4), 하나님은 이 계획을 이루기 위하여 베드로에게 환상을 통하여 말씀하신다. 베드로는 시간에 따라 기도하는 대로 정오에 지붕에 올라가지만 배가 매우 고픈 상태였다. 그는 비몽사몽 중에 하늘로부터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고(행 10:11), 그 안에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을 보면서 “일어나 잡아 먹어라”(행 10:13)는 말씀을 듣는다. 유대인들은 율법에 의하여 허락된 동물 외에는 먹을 수 없기 때문에(참고 레 11, 신 14) 베드로는 “주여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행 10:14)라고 대답한다.

베드로가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 성령이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행 10:19-20)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고 그 때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문 밖에서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를 듣게 된다. 그리고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행 10:22)는 그들의 말을 듣고 베드로는 이방인들과 함께 유숙하며 성

령의 지시에 따라 고넬료의 집에서 설교함으로써 복음이 고넬료의 집안에 들어가게 된다.

베드로의 낮꿈에 대한 해석은 고넬료와 연관된 ‘이방인의 회심’ 뿐만이 아니라 사도행전과 이후 전개될 로마인들의 회심과도 연관이 된다.<sup>35)</sup> 이는 “특정 목적을 위해 특정 시기에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아야 한다는 입장이 강하다.<sup>36)</sup> 또한 사도행전 10장에 있는 이방인이라는 개념(10:28)에는 열등의 개념이 전혀 없다고 해석된다.<sup>37)</sup> 이방인과 유대인들 사이에 있었던 편견에 대하여 누가는 10장과 11장에서 자신과 베드로의 말을 통하여 이상적인 기독교 공동체의 복원에 대하여 관심을 가진다.

베드로는 이방인의 구원에 대하여 부정적인 입장에 있었지만, 베드로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간 것으로 보면(행 10:6), 베드로도 어느 정도는 종교적인 편견에 대하여 고민하고 있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베드로가 머물렀던 무두장이 시몬이 당시 죽은 짐승의 가죽을 다루는 율법적으로 부정한 사람임에도 베드로가 함께한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베드로가 기도하던 시간은 정오였기 때문에 매우 시장하였고 그의 환상에 먹을 것이 등장한 것은 지극히 자연적인 꿈의 현상으로 보인다. 허기진 상태에 먹을 것이 보이는데, 먹어야 할 것을 먹는 것이 아니라 먹지 말아야 할 것을 먹어야 하는 환상의 내용이다. 이 또한 인간의 무의식에 억압되어있던 부정한 짐승을 먹을 수 없다는 율법과 이를 먹으라는 말씀, 그리고 이를 먹을 수 없다고 부정하는 베드로의 의식의 교차점에 있는 베드로의 환상은 전형적인 꿈의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베드로의 낮꿈에는 블로흐식 낮꿈의 해석을 넘어서는 기독교의 계시사건이 드러나며 인간의 의식과 무의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이 나타난다. 그 내용을 다음에서 살펴보자.

35) Tom Wright, 양혜원 역, 『사도행전』 (서울: IVP, 2008), 228.

36) 위의 책, 234.

37) E. M. Blaiklock, 나용화 역, 『사도행전』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80), 132.

## F. 블로흐의 유토피아를 넘어 하나님의 나라로

베드로의 낮꿈 내용을 블로흐식의 낮꿈 해석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을 것이다. 베드로의 낮꿈은 종교적 세계관을 미래와 연관된, 그리고 사도로써 그의 잠재성이 발현되고 현실의 억압된 종교 사회 문화적 조건들을 개선하려는 유토피아로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베드로의 낮꿈이 개별적 환상과는 구별되는 실현가능한 잠재적인 종교적 유토피아, 즉 복음의 성취가 완성된 사회를 지향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베드로가 갈구하는 이방인의 구원에 대한 꿈은 의지의 표현이며, 기존에 존재하는 종교적 편견과 인간의 유한성을 극복하려는 시도로 블로흐의 이론을 빌려올 수 있다.<sup>38)</sup>

블로흐가 본 것처럼 인간의 역사란 일관적으로 상승하며 진보하는 헤겔식 역사가 아니라 다양한 돌발적이며 직접적인 대립구조를 통해 분절적으로 변화하며 개혁되는 것이라고 할 때, 이러한 변화의 기저에 베드로가 경험한 낮꿈을 통하여 실제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개혁이 일어났다고 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블로흐의 희망의 철학에서 지향하는 유토피아처럼 베드로의 낮꿈은 결코 단순한 환상이 아니라 꿈이 지향하는 개방성을 통하여 폐쇄되지 않은 미래를 향한, 즉 '닫힌 계'(closed loop)가 아니라 철저히 '열린 계'(open loop)의 면모를 보여주는 것 같기도 하다.<sup>39)</sup>

그러나 블로흐식의 낮꿈에 대한 해석을 베드로의 경우에 적용하기에 한계가 보인다. 그것은 크게 세 가지 관점에서 살펴볼 수 있다.

첫째, 베드로에게 나타난 낮꿈은 시간과 공간 안에서 일련의 연속성을 가진다. 그 내용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이 개입되며, 그 최종 목표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향하신 최종목표인 인간의 완전 즉 구원이다. 블로흐는 나름 헤겔식 관념론과 마르크스의 유물론에 따라서 유토피아적 희망이 유물론적 조건이 갖추어지면 완성되는 것으로 보았다. 베드로의 경우 허기짐의

38) Ernst Bloch, 『희망의 원리』 2권, 912.

39) 위의 책, 609.

상태로 볼 때 유토피아는 허기짐을 채우는 것처럼 보이나, 궁극적으로는 고넬료의 가정 구원과 연관되는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게 된다.

베드로의 낮꿈에는 블로호식 검열이 약화된 자의식과 자신의 주위 사람들에 대한 공동적 관심, 그리고 미래에 일어날 일을 개방성을 가지고 목적으로 나아가는 요소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블로호식으로 설명이 불가능한 부분은 베드로와 고넬료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가 시간과 공간적으로 빈틈이 없이 구성되었다는 점이다.

고넬료는 기도 중 구원을 예비하신 환상을 보았고, 베드로라는 구체적인 이름과 그를 청하고 그가 머무르고 있는 읍바라는 장소까지 알게 되었다(행 10:3-5). 베드로가 시장한 가운데 환상을 볼 때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읍바로 오고 있었고(행 10:9-16), 베드로가 환상의 의미에 대하여 곰곰이 생각할 때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도착했으며(행 10:17-18), 베드로가 여전히 환상에 대하여 고민하고 있을 때 성령은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과 함께 갈 것을 명령하셨다(행 10:19-20). 그리고 베드로가 그를 찾아온 사람들에게 자신을 소개하였을 때 그 사람들은 자신들이 방문한 목적을 자세히 설명하였다(행 10:21-23).

따라서 베드로의 낮꿈에는 단지 인간의 배고픔과 편견의 세계의 어두움을 극복하려는 갈망적 요소만이 아니라 인간의 시간에 개입하는 하나님의 섭리와 구원이라는 목표가 성취된다. 따라서 여기서 낮꿈은 베드로와 고넬료의 구원사건에서 블로호식 희망의 실현을 넘어서서 불안정한 인간을 구원을 통하여 완전하게 하는 존재론이 형성되는 것이다. 즉 블로호가 비판하였던 현실 속에서 인간의 완전을 위하여 신의 존재론과 연결하는 기독교적 존재론이 베드로의 낮꿈과 현실이 일치하는 점에서 블로호의 낮꿈의 해석을 극복하고 있다고 본다.

둘째, 베드로의 낮꿈에서 프로이드의 밤꿈이나 블로호의 낮꿈으로 해석할 수 없는 의식과 무의식의 영역을 주관하는 하나님의 개입과 아울러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는 윤리적 결단이 함께 내포되어 있다. 낮꿈에서 인

간의 무의식이나 어두움에 웅크리고 있는 자의식은 발현되어야만 각성된 의식이 된다. 베드로에게도 이방인에 대한 자의식은 무의식의 영역에서 편견 때문에 구원의 문제와 연관하여 고민이 있을 수 있으나, 최종행위를 이끈 것은 성령의 음성이었고 이에 대한 전적인 베드로의 의식적 순종이 나타난다. 즉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나게 된 것은 자기의 자의식을 내려놓고 성령의 뜻에 순종함으로써 이루어진다.

따라서 블로흐식의 낮꿈 해석으로 적용되지 않는 또 다른 의식세계, 즉 성령의 말씀이라는 계시적 사건이 베드로에게는 나타나며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윤리적 행위가 뒤따른다. 따라서 베드로의 환상에서 무의식의 욕망과 이에 대한 자의식의 부정 사이에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절대적 기준과 이에 대한 전적인 순종, 즉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가 존재하는 것이다.

셋째, 베드로의 낮꿈은 이 땅의 유토피아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연관된다. 고넬료와 베드로의 낮꿈의 경우처럼 크리스천의 꿈에는 여전히 초월의 계시 영역이 존재하는데, 이는 이 땅에서의 삶의 영역이 유토피아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존재에 있다. 베드로의 자아의식은 자신의 무의식의 욕망에 대한 확장이 아니었다. 인간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영역은 의식과 무의식을 다 주관하심으로써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이 확증된다. 고넬료에게 전하여 준 복음의 핵심내용은(행 10:24-48)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며 나사렛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믿는 자에게 죄 사함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다.

베드로는 예수를 역사 한가운데 실존하였던 구세주이고, 예수는 구원을 위하여 일하는 분이며, 그리고 예수 안에서 구원과 심판의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셨다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한다. 그러므로 베드로의 낮꿈을 통하여 실현되는 세상은 희망이 있는 곳에 종교가 나타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종교가 있는 곳에 희망이 있었다. 성경에 있는 베드로의 낮꿈은 혁명과 저항의 인간적 움직임에 멈추지 않고 이 역사 한 가운데 하나님

의 나라를 선포함으로써 이 세계의 주인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임을 인정하고 미래에서 다가오는 종말론이 아니라 실현된 종말론을 인정하게 되는 것이다.

### III. 결론

지금까지 필자는 에른스트 블로흐의 낮꿈에 관한 이론을 중심으로 그의 희망의 원리로서 꿈과 유토피아의 관계를 살펴보고 베드로의 낮꿈 해석에 적용하고 블로흐의 낮꿈 이론의 한계를 살펴보았다. 블로흐의 전 사상계를 통하여 보다 심도 있는 해석이 적용되지 못한 것은 이 글의 한계이나 최소한 프로이트의 밤꿈을 극복하고, 인간의 무의식과 의식의 교차점에서 미래사회의 동인으로서 유토피아적 희망을 인간의 자리에 놓고 다시 한 번 주체성의 상실을 회복하라는 블로흐의 메시지는 자못 예언자의 그것처럼 들리기도 한다.

그러나 행동의 주체성이라는 관점에서 베드로의 낮꿈은 그 동인이 하나님이며 역사를 주관하는 분으로서 이 땅에 오신 예수와 성령의 삼위일체론적 신론이 보존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시간과 공간의 창조주로서 하나님은 인간의 의식과 무의식의 세계를 주관하며, 인간의 내적갈망과 욕구를 복음을 통한 인간구원에 간섭함으로써 유토피아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현실을 인정하게 된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인간 무의식의 세계와 혼란스럽게 얽혀져 영상으로 나타나는 낮꿈에 머무르지 않고 인간이 행동해야 할 윤리적인 지평이 분명하게 제시됨으로써 꿈은 ‘아직-아닌-존재’(the Not Yet)를 넘어 ‘타자를 위한 존재’(being-for others)를 실현하게 된다.<sup>40)</sup> 의식의 확장이 현실이 되며 물질적 조건의 혁명을 전제로 한 일련의 헤겔식 종말론을 넘어서 ‘하나님

40) 참고: 본회퍼, 강성영 역, 『창조와 타락』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10), 80-89.



의 나라'의 실현으로 이어지고, 의식 자의식을 구성하는 인간 전체의 주권이 인정되는 기독교적 세계관이 베드로에게 나타나는 것을 보았다.

윤리적 행위는 크리스천의 삶과 연관이 되며 궁극적으로는 하나님나라의 실현을 위한 복음의 사명과 연관이 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본다. 복음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메시지의 전달방법보다도 전달할 내용이 더 중요하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sup>41)</sup> 이런 맥락에서 꿈 또한 복음사건을 소통하는 요소로서 경험의 다차원적 요소와 연관이 된다면 이 또한 전도와 연결이 될 수 있다는 점도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sup>42)</sup> 또한 복음의 전도가 진공상태의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삶을 통한 상황이 연결된다고 할 때 삶의 구성요소가 의식과 무의식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을 고려할 때 꿈의 내용 또한 복음의 요소로서 간주되어야 할 것이다.<sup>43)</sup>

따라서 필자는 현대 기독교신학에 있어서 꿈의 해석에는 하나님의 계시 영역과 인간의 시간과 공간, 의식과 무의식에 대한 하나님의 주관성, 그리고 꿈의 해석을 통한 복음과 연결된 윤리적 결단을 보다 심도 있게 적용되어야 한다고 본다. 그리고 이성의 시대에 초월의 신비를 담고 있는 꿈이 보다 깊게 해석되고 꿈에서 나타나는 하나님 나라의 희망이 이 땅에서 말씀의 순종과 윤리적 행위로 연결되기를 바란다. 

41) 참고, 박보경, “지역교회의 문화사역을 통한 복음전도,” 『선교와 신학』 36집 (2015. 6), 107.

42) 위의 책, 109. 박보경은 그의 글에서 꿈에 대한 해석에 대하여 논하지는 않지만 전도에 있어서 복음에 대한 다차원적 경험의 요소를 중시하고 있기에 필자는 이 글에서 꿈도 다차원적 경험의 요소가 될 수 있다고 본다.

43) 위의 책, 110. 박보경은 삶을 통한 다양한 상황에 대한 해석을 문화와 연결된 복음에 대하여 강조하며 필자는 여기서 그의 이론을 빌려 ‘삶의 요소와 연결된 꿈’이라는 맥락에서 제한적으로 해석함을 밝힌다.

참고 문헌

Bloch, Ernst. *Traces*. trans. by Anthony A. Nassar. Stanford, CA: Stanford University Press, 2006.

\_\_\_\_\_. *The Utopian Function of Art and Literature: Selected Essays*. trans. by Jack Zipes and Frank Mecklenburg. Cambridge, MA: The MIT Press, 1989.

Freud, Sigmund. *The Interpretation of Dreams*. trans. by James Strachey. New York: Basic Books, 2010.

Blaiklock, E. M. 나용화 역. 『사도행전』,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80.

Bloch, Ernst. *Das Prinzip Hoffnung*. 박설호 역. 『희망의 원리 1, 2, 3, 4, 5』, 서울: 열린책들, 2004.

\_\_\_\_\_. *Atheismus in Christentum: Zur Religion des Exodus und des Reichs*. 박설호 역. 『저항과 반역의 기독교』, 서울: 열린책들, 2009.

Bonhoeffer, Dietrich. 강성영 역. 『창조와 타락』,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10.

Wright, Tom. 양혜원 역. 『사도행전』, 서울: IVP, 2008.

박보경. “지역교회의 문화사역을 통한 복음전도.” 『선교와 신학』 36집 (2015. 6).

Brata Das, Sautya. “Fredrich Wilhelm Joseph von Schelling.” Internet Encyclopedia of Philosophy. URL=<http://www.iep.utm.edu/schellin/>

Springett, Ben. “Philosophy of Dreaming.” Internet Encyclopedia of Philosophy. URL=<http://www.iep.utm.edu/dreaming/>

Thompson, Peter. “The Frankfurt School, part. 6: Ernst Bloch and the Principle of Hope.” *the Guardian, Philosophy: How to Believe*, April 29th, 2013. URL=<http://www.theguardian.com/commentisfree/belief/2013/apr/29/frankfurt-school-ernst-bloch-principle-of-hope>

■ Abstract ■

## Beyond Ernst Bloch's Daydreaming and Utopia: Peter's Daydreaming and the World of God

Kyoung Dong Yoo

Sigmund Freud thought dreams as the unconscious and hidden sexual desire, but Ernst Bloch, in *The Principle of Hope*, regarded daydreaming such qualities as hope, desire and the utopian vision of the future. Bloch explored the meaning of 'The-Not-Yet-Conscious' and 'Anticipatory-Illumination', envisioning humans as ones to achieve a better life beyond utopian impulses.

I am particularly interested in Bloch's 'Not-Yet-Conscious,' and his 'principle of hope' to fulfill utopian longings, but still feel that his systematic examination of daydreams is not enough to apply it to the case of religious daydreams appeared in the Scripture. While there are probably some comprehensive utopian imagination and reality in Bloch's philosophy, I argue that hope in daydreaming not only


---

**Kyoung Dong Yoo** received an M.T.S. at Emory University and earned Ph.D. degree from Vanderbilt University. Now he is a professor at the department of Ethics and Society at Methodist Theological University, and he serving as president of Christian Ethics Society of Korea.

permeates human consciousness but is designed and achieved by the will of God.

In Acts 10, Peter met Cornelius who was a gentile. God's purpose for them was to let them know that no human beings are treated as profane and unclean in the eyes of God. Luke emphasizes God's will and salvation for gentiles through divine intervention in Peter's daydreaming.

In the discussion of the relationship and comparison between Bloch's theory of daydreaming and Peter's one, such issues as utopia, daydreaming, the world of God, the will of God, and God's intervention in human consciousness are engaged to explore the meaning of ethics and responsibility in the understanding of Christian religious daydreaming.

After reviewing all the factors of the above issues briefly, this paper comes to a conclusion that the interpretation of daydreaming needs to be reshaped to realize the meaning of salvation, obedience and responsibility in Christian daydreaming. 

#### Key Words

Ernst Bloch, daydream, utopia, Peter's daydream, World of God